

해남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속도

국가균형발전위 공모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
국비 32억 확보... 어린이집·장난감도서관 입주

해남군의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32억원을 확보,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됐다. 생활SOC는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생활SOC 3개년(2020~2022년) 계획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를 달성한 해남군은 영유아 보육과 양육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오는 2021년

까지 총사업비 140억여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4,010㎡)로 해남읍(구)공공도서관 부지에 조성된다. 센터 내에는 공립 해남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고,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주민편의와 가족지원의 종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아이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난감도서관도 입주해 육아정보를 나누는 거

점으로 젊은 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가족지원을 위한 교육실을 비롯해 육아 가정과 이주여성들을 위한 '동네부엌'과 주민들의 쉼터로 개방될 '동네카페' 등도 들어선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6일 "지난 6월 여성가족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국비 확보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농촌지역의 부족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구정책의 큰 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진도군 군내면 금곡마을에 자신이 30여년간 모은 수석과 그림 등을 전시하는 홍보관을 오픈한 주민 김기용씨(57).

진도 수석·그림·진도개 홍보관 개장

주민 김기용씨 수집 작품 등 200여점 전시

보배섬 진도군에서 수석과 그림, 진도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내면 금곡마을 일원에 최근 '굿모닝 진도 진도개 수석 홍보관'이 개장했다. 이곳에는 주민 김기용씨(57)가 30여년동안 수집한 희귀한 수석 140점과 그림 40점, 서각 20점 등 200여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또 진도개 심사위원으로 12년 동안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진도개 20여 마리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진도개 체험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공간을 따로 조성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씨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진기한 수석을 평생 수집했으며, 10여 년전부터 취미로 시작한 수준급으로 오른 서각 작품은 직접 제작했다. 김씨는 "4면이 바다인 진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굿모닝 진도 진도개 수석 홍보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최고급 고려청자 만들던 발굴현장 일반 공개

강진청자축제 기간 진행
사당리 8호 요지 등 대상

강진군이 국가사적 제68호로 지정된 '강진 고려청자요지' 중 사당리 요지 발굴조사 현장을 공개한다. 발굴 현장은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9번지 일원으로 사당리 8호 요지와 40호 요지가 위치한 곳이다. 현장공개는 9일까지 열리는 강진청자축제 기간 동안 진행된다. 공개 대상지는 전성기 고려청자 핵심 장소로 평가되고 있어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곳이다.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사당리 2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많은 최고급 고려청자 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고려청자를 제작했던 공방 건물지와 청자가마터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굴되고 있는 곳이다. 1차 발굴조사에서 가마 1기, 폐기장 3개소, 건물지 1기, 고려 시대 도로유구 1기 등이 확인됐다. 초기청자부터 삼감청자, 관사·간지명 청자 등 최고급 청자가 출토돼 사당



강진군은 9일까지 국가사적 제68호로 지정된 '강진 고려청자요지' 중 사당리 요지 발굴조사 현장을 일반에 공개한다. /강진군 제공

리 일원이 우수한 품질의 청자를 제작했던 중심지였음을 입증했다. 현재 발굴조사 현장에는 최고급 고려청자를 비롯해 청자를 만들었던 공방 건물지와 관리하는 관청인 치소(治所)가 발굴되고 있다. 고려청자 발굴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는 데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6일 "25년 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록된 고려청자요지가 아직 등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이어 "태풍으로 연기된 강

진군·부안군·해남군이 세계유산 공동추진 협약 체결도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며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강진청자축제, 9일까지 관광객 유혹

청자촌 일원...할인 판매·이벤트 존 운영

가을 대표축제인 '제47회 강진청자축제'가 9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5일 개막한 축제는 '흥이 있는 다이내믹 청자축제'를 위해 남사당패 공연, 화목가마 장작 패기, 추억의 디스크양 등 청·장년층을 겨냥한 참여 프로

그램을 강화했다. 고려시대 저잣거리를 재현한 '고려주막'도 설치했고, 고려주막 인근 소무대에서는 각설이, 옛장수 공연을 진행한다. 축제장 곳곳에서 굴렁쇠, 고무줄 넘기, 사방치기, 팽이치기 등 추억의 전

통놀이를 진행해 방문객 참여를 유도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청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려청자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도 추진된다. '천하제일 고려청자'의 제작과정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관내 도예작가가 참여해 수비 작업부터 요출까지 청자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일부 과정은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강진=한태선 기자

청자축제는 청자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강진관요와 민간요에서 생산한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명품 강진청자를 평소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한옥청자판매장 내에서는 이벤트 존도 운영한다. 이벤트 존에서는 소품과 생활자기 위주의 즉석 경매를 오후 3시를 전후해 1일 1회 진행한다. /강진=한태선 기자

해남 '투자유치의 날, 홈커밍데이' 개최

내달 1일 이틀간...기업인 등 300여명 참석

땅끝 해남에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홈 커밍데이' 행사가 열린다. 해남군은 11월 1일부터 이틀간 '2019 해남군 투자유치의 날,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 전국 각지 향우 기업인을 초청해 투자환경과 여건을 소개하고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끌어내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향우 기업인과 관내 중소기업

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해남미남(味喃) 축제와 병행해 주요 투자 후보지를 직접 현장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다. 군은 올해 첫 행사 이후 대규모 투자유치대회까지 확대해 투자유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참석 향우 기업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숙박 및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무안 농어촌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

보건소 신축 등 사업비 58억 확보

무안군은 6일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무안군 보건소 이전신축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 등이 선정돼 총사업비 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안군 보건소는 지난 1999년 이전 신축한 이후 공간이 협소해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6월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건소 이전 신축을 포함, 8개 사업 총사업

비 58억원을 확보했다. 신축될 군 보건소는 구 5일 시장 부지로 대중교통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우수하다. 내년 초 설계공모를 거쳐 연말 착공해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선정된 일로·현경·해제·운남보건지소는 개보수를 통해 지역맞춤형 소생활권 중심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보건소가 이전 신축되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조성되면 의료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클릭! 고향 소식



무안 자원봉사센터 벽화그리기 자원봉사

무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최근 망우면 탄도리에서 '가고 싶은 섬, 탄도'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그리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에는 자원봉사

터,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남도사랑봉사단 무안지회,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벽화그리기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수거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김선명 영암경찰서 경리계장 장학금 기부

김선명 영암경찰서 경리계장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영암군민 장학회에 250만원을 기탁했다. 김선명 계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9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을 기탁했다. 김 계장은 "포상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게 돼 공직자로 보람을 느끼며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신안천사김 장학금 기탁

(주)신안천사김(대표 권동혁)은 최근 신안 지역 김 생산 어가와 저소득 자녀를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3,000만원을 (재)신안군장학재단에 지정, 기탁했다. 신안천사 김씨는 "기탁자의 뜻에 따라

신안의 인재를 찾아내고 성장시키는데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주)신안천사김은 지난 2012년 회사 설립부터 총 1억1,900만원을 기부해 오고 있다. /신안=이주열 기자